



# 천주의 성 요한의 길 교재

두 번째

## 부록

편집: 관구교육위원회 위원들(2022~2026)





## - 목 차 -

### **부록 하나. 천주의 성 요한의 길!**

가지 않은 길 · 01

사랑하는 주님 · 02

### **부록 둘. 천주의 성 요한의 겸손함**

둘 · 03

당신(치료자)과 나(손님) · 04

### **부록 셋. 천주의 성 요한의 자유로움, 성숙함**

『명상록』 중에서 · 05

미소 · 07

### **부록 넷. 카리스마적 인물**

긍정적 카리스마 리더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 10

참된 리더 '우영우' 상사처럼 말하는 법 · 13

### **부록 다섯. 호스피탤러티**

『지금은 다시 사랑할 때』 중에서 · 15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 · 17

방문객 · 18

### **부록 여섯. 협조자와 수도회**

직장에서 지켜야할 황금률: 존중 · 19

나는 작은 협력자일 뿐입니다 · 25

### **부록 일곱. 고통의 의미**

고통이 없다면 좋은 것인가 · 26

우리 눈물로 깨끗해지는 눈 · 29

흔들리며 피는 꽃 · 31

**부록 여덟. 경청과 호스피탈리티**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눈물 · 32

‘나’의 가치 · 36

**부록 아홉. 요한의 꿈**

삶의 한가운데서 마주한 중년의 성장통과 깨달음 · 38

비밀 레시피 · 41

**부록 열. 마음의 감옥**

꼰대인가 어르신인가? · 42

어느 독일 노인의 시 · 44

**부록 열 하나. 기도**

기도, 소통이자 요청이다 · 45

가치들을 청하는 기도 · 47

**부록 열 둘. 인간화**

인간다움 vs 탈인간화 · 48

필요한 휴머니즘을 향하여 · 51

##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수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 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 사랑하는 주님

## 존 헨리 뉴먼

제가 가는 곳마다 당신 향기를 퍼뜨리도록 도와주소서.  
제 영혼에 당신 영과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저의 삶 전부가 오직 당신의 찬란한 빛이 되도록  
저의 온 존재에 속속들이 스며드소서.  
저를 통해 빛을 비추시고 저를 만나는 이들은 누구나  
제 영혼 안에서 당신 현존을 느끼도록 제 안에 머무소서.

오, 주님, 그들이 눈을 들어 볼 때 더 이상 제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만을 보게 하소서.  
저와 함께 머무시면 저는 당신처럼 환해지리다.  
저는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만큼 환해지리다.

주님, 그 빛은 오로지 당신한테서 나오며  
제 빛은 조금도 없나이다.  
저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둘러싼 이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써  
가장 큰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설교하지 않고 당신을 전하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모범으로,  
전염시키는 힘으로,  
제가 하는 일에 공감하는 영향력으로,  
당신을 향한 제 사랑의 명백한 충만함으로  
당신을 보여주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문은 마더 데레사 수녀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의 선교회 수녀들이 날마다 바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8,12

## 둘

### 「인생 독본 1」 / 톨스토이

두 여자가 어느 은수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한 여자는 스스로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생각했는데, 젊었을 때 남편을 배신하고는 줄곧 괴로워하며 살고 있었다. 또 한 여자는 언제나 율법을 지키고 딱히 이렇다 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은수자는 두 여자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었다. 한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죄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해 차마 용서를 바라지도 않았다. 또 한 여자는 이렇다 할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은수자가 첫 번째 여자에게 말했다.

“그대, 신의 종이며, 울타리 밖으로 나가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 하나를 찾아오십시오 …… 그리고 당신은,” 그는 이렇다 할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여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들 수 있는 만큼 많은 돌을 가져오되 작은 돌로만 가져오십시오.”

여자들은 나가서 은수자가 시킨 대로 했다. 한 여자는 큰 돌을 하나 가져오고 또 한 여자는 작은 돌들을 자루에 채워 들고 왔다.

은수자는 그 돌들을 본 뒤 말했다.

“이번에는 가져온 돌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놓고 바로 돌아오십시오.”

여자들은 은수자가 시킨 대로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첫 번째 여자는 돌이 있었던 곳을 쉽게 찾아내 제자리에 놓았다. 그러나 두 번째 여자는 어디서 어떤 돌을 집었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 은수자의 말대로 하지 못하고 돌이 든 자루를 그대로 들고 돌아왔다.

“보십시오,” 은수자는 말했다. “죄도 그와 같습니다. 당신이 크고 무거운 돌을 쉽게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주웠는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디서 그 많은 작은 돌들을 주웠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의 비난과 양심의 가책을 겸허하게 견뎠고, 그럼으로써 죄의 대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은수자는 작은 돌들을 도로 들고 온 여자에게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작은 죄를 많이 짓고도 그것을 기억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그런 삶에 익숙해져 오히려 남의 잘못을 비난하면서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졌습니다.”

## 당신(치료자)과 나(손님)

나는 시설 입소자이다. 당신은 주민이다.

나는 입원했다. 당신은 들어왔다.

나는 공격적이다. 당신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

나는 행동문제를 갖고 있다. 당신은 무례하다.

나는 비순응적이다. 당신은 남들 시킨대로 하고 싶어하지는 않다.

내가 당신에게 저녁 식사하러 나가고 싶다고 말하면, 그건 외출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나가자고 하면, 그건 데이트이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활 기록지를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거기에 무어라 쓰여 있는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당신친구가 당신 일기장을 보았다고 한 달 동안이나 그와 말하고 있지 않다.

나는 식료품점에서 우리 뒤에 있는 잘 생긴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낮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말을 들었다.

당신은 야채가게에서 당신 배우자를 만났다.

나는 5명의 다른 입소자들과 2명의 직원과 함께 내 생일파티를 하였다.

나는 가족이 축하 카드를 보내주기를 바랬다.

당신 가족은 깜짝 파티를 준비하였다.

남동생이 해외에 나가서 참석할 수 없었다. 정말 멋지게 들린다.

내 담당자가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잘했던 것 모든 것을 내 부모에게 말했다.

당신이 고속위반딱지를 받은 것을 당신 여동생이 어머니께 일러서 아직도 화가 나있다.

나는 오늘밤 내 예산 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예산에 적합하다면 맥도날드에 갈 수 있다.

당신은 새로 열린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 신용카드를 받아주어서 기뻐하고 있다.

내 사례 관리자, 심리학자, 직업치료사, 영양사, 시설 관리자는

내년을 위한 내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신은 당신 인생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어느 날엔가, 나는 퇴원할 것이고 아마도.

당신은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 『명상록』 중에서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4.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 당신의 남은 생애를 허비하지 말라.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런 일을 할까,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까 - 그 밖에 우리의 지배적인 힘(이성)을 어지럽히는 온갖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당신은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목적이 없고 무익하며 기껏해야 지나친 호기심에서 나온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갑자기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더라도 곧 가장 솔직담백하게 “이러이러한 일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일만을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을 들으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단순하고 자애로우며 사회적 동물에게 어울리는 일이고 쾌락이나 감각적 향락과 관련된 생각이 아니며, 또한 적대감 혹은 질투나 의심, 기타 당신 마음속의 생각을 털어 놓고 나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져야 한다. 서슴지 않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제(司祭)나 신들의 종복(從僕)과 같아서, 자기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더럽혀지지 않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도 개의치 않고 나쁜 일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가장 고귀한 투쟁을 하고 있는 투사로서 어떠한 정념에도 정복당하지 않고 마음속까지 정의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한 거의 생각하지도 않게 된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는 만유(萬有)로부터 할당된 일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평한 행동을 하며, 자기의 운명은 훌륭한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각자에게 할당된 운명은 그의 결을 떠나지 않으며 그 운명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모든 이성적 동물은 동류(同類)이며, 따라서 만인을 돌보는 일은 자연에 따르는 것임을 상기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만인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 아니라, 다만 자연에 순응하여 사는 사람들의 의견만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에 순응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집에서나 집 밖에서, 또한 밤이나 낮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불결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항상 결심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사람들의 칭찬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5. 부지중에, 또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함이 없이, 또는 신중한 음미도 없이, 또는 오락삼아서 일하지 말라. 당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장식하지 말며 수다를 떨지 말고 공연한 일로 수선을 피우지 말라. 또한 당신의 마음속의 신성(神性)을 삶의 수호자로 삼아라. 그래서 남자답고 성숙한 나이가 되어 정치 문제에 관여하고 로마인으로 마치 죽음이 부르는 신호를 기다리다가, 어떠한 맹세나 증인도 필요 없을 만큼 담담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처럼 자기 위치를 지키는(자기 자신의) 지배자가 되라. 또한 쾌활하라. 그리고 남의 도움이나 남이 주는 안식을 구하지 말라. 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 곧바로 서야지 남의 힘을 빌어서 곧바로 서서는 안 된다.

# 미소

## 하늬 멕카티

『어린 왕자』를 쓴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에 대해선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그 책은 아이들을 위한 작품일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생각할 기회를 많이 주는 동화이다.

하지만 생텍쥐베리가 쓴 다른 작품들, 이를테면 산문과 중단편 소설들은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생텍쥐베리는 나치 독일에 대항해서 싸운 전투기 조종사였으며, 전투 참가 중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스페인 내란에 참여해 파시스트들과 싸운 적이 있었다.

생텍쥐베리는 그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미소』라는 제목의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썼다. 오늘 내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소설의 내용이다.

이것이 실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허구의 이야기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작가 자신의 진실한 체험일 것이라고 믿는다.

『미소』에서 생텍쥐베리가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전투 중에 적에게 포로가 되어 감방에 갇힌 적이 있었다. 간수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거친 태도로 보아 그가 다음 날 처형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소설의 내용을 여기에 기억나는 대로 옮겨 보겠다.

나는 죽으리라는 것이 확실했다. 나는 극도로 신경이 곤두섰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담배를 찾아 호주머니를 뒤졌다. 몸 수색 때 발각되지 않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였다.

다행히 한 개비를 발견했다. 나는 손이 떨려서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데도 힘이 들었다. 하지만 성냥이 없었다. 그들이 모두 빼앗아 가 버린 것이다.

나는 창살 사이로 간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눈과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자와 누가 눈을 마주치려고 하겠는가. 나는 그를 불러서 물었다.

“혹시 불이 있으면 좀 빌려 주겠소?”

간수는 나를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내 담배에 불을 붙여 주기 위해 걸어왔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성냥을 켜는 순간 무심결에 그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쳤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른다. 어쩌면 신경이 곤두서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어색함을 피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난 그 상황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우리들 두 인간 영혼 속에 하나의 불꽃이 점화되었다. 물론 나는 그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의 미소는 창살을 넘어가 그의 입술에도 미소가 피어나게 했다.

그는 내 담배에 불을 붙여 주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 역시 그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그가 단순히 한 명의 간수가 아니라 살아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새로운 차원이 깃들여 있었다.

문득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소?”

“그럼요. 있구말구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얼른 지갑을 꺼내 허둥지둥 나의 가족사진을 보여 주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꺼내 보여 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 등을 이야기했다.

내 눈에 눈물이 그렇거렸다. 다시는 내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될까 봐 난 두려웠다. 난 그것을 간수에게 고백했다. 내 자식들이 성장해 가는 걸 지켜볼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 슬프다고, 이윽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어른거렸다.

갑자기 간수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나를 조용히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소리 없이 감옥을 빠져나가 뒷길로 해서 마을 밖까지 나를 안내했다.

마을 끝에 이르러 그는 나를 풀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서서

마을로 걸어갔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의 미소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다.

그렇다. 미소는 사람 사이에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어 준다. 나는 강연을 할 때마다 청중들에게 생텍쥐베리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우리가 비록 각자 주위에 온갖 보호막을 둘러친 채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누구나 그 밑바닥 깊은 곳에는 진정한 인간이 살아 숨 쉬는다고 난 믿기 때문이다.

나는 감히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르고 싶다.

당신의 영혼과 내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다면 우리는 결코 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서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두려워할 수가 없다. 생텍쥐베리의 『미소』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기적의 순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 긍정적 카리스마 리더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 유경철 / 소통과 공감 대표

- 변화무쌍한 경영환경에서 조직은 어떤 리더를 원할까? 뭔가 파격적으로 조직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원할 것이다. 리더에게 카리스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카리스마만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긍정적이란 전제가 필요하다. 긍정적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카리스마(Charisma)'는 기적을 행하거나 미래의 사건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이 '하늘이 부여한 재능'이라는 의미를 가진 희랍어이다.

저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1968)에 따르면, 사회적 위기에서 리더가 해결책으로 근본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믿은 부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카리스마가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그 카리스마는 비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부하들은 비전 달성과 함께 그 리더를 비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를 더 찾게 된다.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명확한 방향을 알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는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를 다음의 4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첫째, 카리스마 리더는 항상 송고한 사명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도록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조직의 방향이 정해지면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전략을 설정하고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방향성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조직원들은 그 강렬함과 열정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된다.

둘째, 카리스마 리더는 비범한 성과나 사건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의 카리스마를 조직원들에게 수시로 입증해야 한다. 흔히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들을 살펴보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면 실제로 자신이 말한 미션을 따르고 목표에 대한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그러한 실행이 없이 강렬한 말만 계속한다면 카리스마는 독선적이고 강압적으로 변질된다.

셋째, 카리스마 리더가 이끄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리더에 준하는 카리스마를 갖게 된다. 실제 리더와 일을 하면서 리더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현상인데 자신이 리더와 동일시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리더의 말을 믿고 추종하며 그와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갖게 된다.

넷째, 카리스마는 가치중립적이다. 카리스마의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간디, 알렉산더와 같이 긍정적인 리더도 있지만 히틀러, 무솔리니와 같은 부정적인 리더들도 카리스마 리더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리스마를 어떻게 사용 하느냐에 따라 좋은 리더, 나쁜 리더로 나뉘질 수가 있다.

카리스마는 탁월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카리스마를 연구한 논문들을 토대로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먼저 신체적인 특징은 매력적인 외모, 강렬한 눈빛, 매혹적인 목소리, 위용 넘치는 힘 등이 있고,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보면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으며, 타인을 지배하려는 성향과 권력 욕구가 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고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더들을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라고 말한다.

카리스마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는데, 리더에 대한 높은 존경심, 충성, 헌신, 애정을 가지고 있고 리더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복종을 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존경하는 간디, 마틴 루터킹 목사도 모두 이러한 추종자들이 있었다.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는 강한 권력욕구, 높은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이상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카리스마 리더들은 조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게 된다

1. 매력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2. 비전을 설명할 때 강력한 의사소통 형식을 사용한다.
3. 비전 달성을 위해 개인적으로 위험을 무릅 쓰며 자신을 희생한다.
4. 높은 기대감을 전달한다.
5. 조직원들에게 낙관주의와 신뢰감을 표현한다.
6. 비전과 일치하는 행동의 역할 모델이 된다.
7. 인상(평판)을 관리한다.
8. 집단이나 조직에 동일시한다.
9. 조직원들에게 활력을 부여한다.

실제 카리스마 특성을 가진 리더들은 매우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비전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뛰어났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리더들은 다양한 은유법을 사용해 사람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은 카리스마 리더에게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다.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고 실제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소통 능력이 뛰어난 리더는 조직원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부정적 & 긍정적 카리스마 리더

카리스마 리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긍정적인 카리스마 리더'와 '부정적인 카리스마 리더'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조직원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검토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리더들은 조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큰 리더들이 조직의 성과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카리스마 리더와 부정적인 카리스마 리더를 구분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한 연구에 따르면 리더가 가진 가치와 성격에 의해서 구별 된다고 한다.

먼저, 긍정적인 카리스마 리더는 사회화된 권력지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에게 헌신하기 보다는 조직에 헌신할 것을 강조한다.

권한을 위임하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결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조직의 사명과 목표에 일치하는 행동에 보상을 해준다. 이러한 리더의 행동은 설령 성과가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조직원들에게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카리스마 리더와 일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할 것이며, 조직은 역동적이고 치열한 경쟁에도 잘 적응하게 된다.

반면, 부정적인 카리스마 리더는 개인화된 권력지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상보다는 자신에게 헌신할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카리스마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고 리더의 개인적 목표를 위해 조직원들에게 충성을 요구한다. 그들을 약하게 만들어 리더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서 조직원들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려고 애쓴다. 중요한 결정에 대한 권한은 리더에 집중되고, 보상과 처벌은 부하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러한 리더들의 결정은 조직원들의 복지보다는 자기미화와 권력 유지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 긍정의 리더십은 신념에 달렸다

카리스마 리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리더가 카리스마를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부작용도 많다. 그러나 부작용보다는 강점을 잘 살려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리더십이든 완벽한 것은 없다. 강점과 약점이 있고 중요한 것은 강점을 잘 살리는 일이다. 조직의 성공과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리더가 가진 강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은 결국 자신의 신념에서 나온다.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답에 본인이 답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는 자신과 조직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카리스마 리더로서 얼마나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느냐는 것이다.

# 참된 리더 '우영우' 상사처럼 말하는 법

## 유미더레터

※ 일부 내용 편집함

초보 팀장이라면?

'우영우' 상사에게 배워라!

세상에 이런 상사가 존재할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의 스토리!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3주 연속 화제성 1위를 기록하며, 시청률 10%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우영우 변호사 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과의 케미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영우 변호사가 사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시니어 변호사 정명석(강기영 역)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잘못은 쿨하게 인정

"이런 건 내가 먼저 봐야 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아니 신입들이 사과할 일 아니야. 내 불찰이지."

업무 지시는 직원 눈높이에 맞게!

정명석은 신입 변호사들에게 업무를 맡길 때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큰 방향성과 가이드를 줍니다. '천재 변호사라면서 그것도 몰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같은 권위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반향어 금지, 워~ 워~" 등 우영우의 눈높이에 맞게 멘트를 던지며, 부하직원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칭찬은 재빠르게 바로바로!

"보통 변호사들한테도 어려운 일이야."

"잘했어요"

✓ MZ 세대가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는?

2021년 잡코리아에서 MZ세대 취준생 506명을 대상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 유형' 설문조사 결과 '인간성 최고! 인품이 훌륭한 상사'가 58.9%(응답률)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는데요. 이어 '워라밸 선호! 공사 구분이 철저한 상사(41.5%)', '업무 능력치 최상! 실무에 능한 상사(37.7%)', '수평적 관계 중시! 협동심이 뛰어난 상사(24.5%)' 등 순서로 꼽혔

습니다.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실무에 능하면서도, 수용적인 면도 갖춘 인품이 훌륭한 리더를 선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선호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관리자 역할보다는 부드러운 멘토, 코치형 리더의 역할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지금은 다시 사랑할 때』 중에서

### 송봉모

무조건 용서해주시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덩석 안아주며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6)

- 대자대비하신 하느님

### 열매

열매는  
다른 생명체에게 생명의 원천이 된다.  
하느님만이 생명의 원천이시지만  
복된 사람도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의 법을 가슴에 품고  
그 법에 뿌리를 내릴 때에  
하느님의 생명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이들을 위한 생명의 원천이 된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다른 생명체에게  
하느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다.

-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간

## 이웃 가꾸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애정을 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키워주는 것이다.

- 생명을 돌보는 인간

##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

영국 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한 소녀의 학부모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두 분의 아이는 수업 중에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지난 일 년 간 아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호전되지 않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아이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라도 검사를 받아보고 특수학교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부모는 아이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자기를 특수학교에 보내지는 않을까 겁이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따라간 곳에서는 아이에게 특별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켜놓고 소녀가 혼자 있도록 했습니다.

옆방에서 상담사와 몰래 아이를 지켜보던 부모는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춤을 배워 본 적도 없는 아이가 음악에 맞추어 근사한 몸동작으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담사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춤에 재능이 있는 아이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게 한 것이 도리어  
이 아이에게는 고통입니다."

부모는 너무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댄스 연습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이자 안무가인 '질리언 린(Gilian Lynne)'입니다.

2018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녀에 의해서 '캣츠', '오페라의 유령' 등과 같은 멋진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고 틀린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차이점이 장점을 부각하는 원동력이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 오늘의 명언

너 자신이 되라! 다른 사람은 이미 있으니까.  
- 오스카 와일드 -

## 방문객

###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 직장에서 지켜야할 황금률: 존중

마이클 록 지음 / 이창훈 옮김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베네딕도처럼 일하라』 중에서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 주어라.’라는 황금률을 기억하는가? 최고로 뛰어난 관리자들도 날마다 황금률을 깨뜨린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할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심리적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경쟁심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경쟁심이 있는 것이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면 누구나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 할 것이다. 당신이 시시콜콜한 간섭과 관리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면 누구나 그것을 싫어할 것이다.

- 마커스 버킹엄과 커트 코프만

버킹엄과 코프만에게서 인용한 윗글은 전통적인 황금률을 타파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황금률의 정신을 포착하고 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개개인의 특정한 필요에 맞춰 대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일이 본성상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보았다. 누가 혼자 일할 때라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더 넓은 사회를 위해 그리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베네딕토 성인은 일과 삶의 공동체적 본성을 끊임없이 새기고 증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공동체가 언제나 개인들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임을 이해했다. 베네딕토 성인은 공동선과 개인 둘 모두를 존중했다. 이는 그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의 변함없는 부분이었다.

우리 자신의 직장 생활을 위해 이런 유형의 지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공동체 전체의 노력과 그 공동체가 속한 개개인을 동시에 다 존중할 수 있을까? 베네딕토 성인이 우리에게 아무런 단서도 남겨두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의 《수도 규칙서》에는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일하는 날뿐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직면하는 특별한 상황들도 헤쳐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구체적인 팁 12가지가 나온다.

팁1.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내거나 깨닫지 못한 채 지내는 것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정신이상

psychosis'이라는 데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측면도 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임 enmeshment'이라고 부른다. '두 심장이 하나로 뛰는' 낭만적 신화는 치러야 할 대가가 아주 클 수 있다. 빠져들지만, 완성할 수 없는 신화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되지 못한다.

베네딕토 성인은 예속이 아니라 겸손을, 발을 땅에 디디기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현실 그대로 대면하기를 주장한다.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그 반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것이다. 현실에 입각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하고, 오만과 자만과 심각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겸손을 향한 첫 단계이자 주요한 단계이다. 베네딕토 성인은 우리에게 사다리, 정확하게는 야곱의 사다리(창세 23, 12 참조) 이미지를 제시한다. 야곱 사다리는 역설적이다. 먼저 '내려가서' 자신의 진짜 삶의 자리에 관해 배울 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주가 우리 주위를 돌지 않지 않음을,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실제로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자리가 있으며, 우리는 이를 식별해야 한다. 균형을 이루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그래서 그 일은 때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내하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팁2: 언제나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는 습성을 버려라. 그렇게 하려면 종종 다른 이들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최고 경영자가 이러한 피드백을 권장하거나 경청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최고 경영자 병'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특히 나쁜 소식을) 알리지 않을 때, 조직의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다.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지도자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현실을 더 잘 인지하고 진행 중인 사안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청한다. 베네딕토 성인은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을 '내가 언제나 옳다'고 하는 자기 고집을 버리는 더욱더 '겸손한' 상태라고 부르곤 했다.(규칙 7,31) 내적으로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경청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좌절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위에 여러 길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벽에 머리를 찌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여기서 신학자 라이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말을 떠올려보자. 그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 하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최고 경영자는 부사장 13명에게 현재의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을 익명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그들이 보낸 의견을 받아 보고는 "하지만 사장은 납니다!"라고 외치고 말았다고 한다. 이는 자신은 절대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남이 주는 의견에서 실질적인 이득이 아닌 정서적인 만족감만 얻으려는 경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아는 것을 고귀하게 여길 수 있을 뿐 아니

라 더욱 협력적이 될 수 있다.

팁 3: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투신을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투신한 정도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이들이 따라야 하는 독선적인 통제 권력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개인들에게, 더 넓은 사회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 우주에 의존한다는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 베네딕토 성인은 언제나 모든 삶과 일이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1992년에, 빌 클린턴 Bill Clinton 당시 미국 대통령은 환경을 비롯한 여타 현안들에 대해 인정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약”이라고 말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맺은 관계들에서 여러 가지 계약과 협약이 생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일에서보다는 가정생활에서 훨씬 쉽게 깨닫기도 한다. 그러나 일의 성격에 따라, 고용주뿐 아니라 사회와 더 넓은 우주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직장의 전체 위계질서에 적용된다.윗사람에게는 언제나 더 윗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 누구도 ‘최고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니 최고 지도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에게 도움이 되며, 다른 이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길이기도 하다.

팁4: 어둠을 몰아내려 하기보다는 빛을 더 밝혀라. 이것은 사방이 공허하게만 보이는 힘든 상황에서도, 진리와 의미의 핵심을, 긍정적인 것을 발견해야 함을 의미한다.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1910~1997)는 흔히 ‘영혼의 어둔 밤’이라고 불리는 ‘내적 어두움’을 50년이나 겪으며 살았다고 한다. 이는 영웅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의기소침할 때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거나 온갖 것이 우리에게 맞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 여기에서 베네딕토 성인은 불굴의 인내를, 판에 박힌 단조로운 (또 때로는 고된) 삶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음을 강조한다. 스페인 아빌라의 데레사 Teresa of Avila(1515~1582년) 성녀는 단지와 냄비에서, 일상 삶 속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인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면 삶의 부침을 헤쳐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감성 지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력자들과 안내자들이 중요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 안에 또는 우리 주변에 있으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우리를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직장은 그와 같은 조력자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직장이 그런 역할을 해 주지 않을 때라도, 동료나 친구, 가족은 사정이 나쁘게 돌아가는 듯이 보일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통찰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절대로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형세를 전망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팁5: 언제 어떻게 가면을 치우고 그냥 우리 자신이 두어야 하는지를 배워라. 이것은 세상이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가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심리 상태를 벌거벗겨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 더욱더 투명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가꾸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단점이 있음을,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난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완전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술을 끊기 위한 모임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다. 이는 단주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임에 처음 참석하며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다.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은 어떤 점수도 따기 어려운 소모적인 일이다. 우리는 우리 동료들이 성형한 가면이 아닌 '실제' 우리를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면 놀랄 수도 있다.

팁6: 남과 맞추는 법을 배워라. 우리는 "쉬엄쉬엄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말은 혼자 무리하지 마라, 너무 서두르지 마라, 좀 더 천천히 하라는 의미이다. TV에서 수백억을 가진 거부가 수천만 원을 더 벌고자 열중하는 것을 보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우리 사회에는 더 갖고자 하는 욕구가 만연하다. 이런 욕구는 전염성이 있어서 세상의 많은 이가 따르고자 애쓴다. 그들은 탈진한 상태에서도 소비를 부추기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며 최신의 이러저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베네딕토 성인은 《수도 규칙서》에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주장한다. 그러나 성인은 장미 냄새를 맡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일과 같은 것들은 전적으로 찬성했을 것이다. 우리 마음을 편히 가지는 것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편하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팁7: 당신에게 있는 그늘진 측면을 외면하지 말고 해결하라!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늘진 측면, 특히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이 뜨거운 감자처럼 된다. 우리는 그 감자를 다른 이들에게 투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수'로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늘진 측면도 더는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그늘진 측면이 우리를 두드리며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 버린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저 운전기사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앞에서 포고가 "나는 원수를 만났는데 그게 바로 나였어!"라고 말했다는 구절이 떠오를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에도 이와 유사한 대목이 나온다. 주인공 햄릿은 자신에게 항의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지나치다"는 것을 깨달았다. 햄릿은 그들이 지나치다는 것을 깨달자 오히려 그들을 의심하게 된다. 이는 내 안에 있는 그늘이 투사된 것이 어느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단지 정보라면, 그것은 다소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내게 감정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투사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고 있다면, 이는 내가 가진 그늘을 꺼안는 것이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몹시 증오하고 그 사람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그 사람과 늘 충돌한다면, 이는 내게 있는 그늘과 싸우는 것이다. 이런 통찰을 통해 자신의 그늘진 자아를 깨달을 때 다른 이들에게 있는 약점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베네딕토 성인은 알려 준다. 대체로 우리는 직장에서 다양한 성격을 지닌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낸다.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우리는 그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를 그 사람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팁8: 가치를 신뢰하고 공유하는 길을 존중하라. 베네딕토 성인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삶 전반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이자 작가인 마가렛 휘틀리Margeret Wheatley는 관계가 맥락을 만든다고 말한다. 물론 그 관계가 건강하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공동체는 사람들이 건강한 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하는 곳이다.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 건강한 직장이란 상호 의존적인 개인으로만 가득하지 않고, 활기차고 살아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다. 그런 직장에서 우리 각자는 특별히 사정이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지?”와 같은 물음을 물을 수 있다.

팁9: 적게 말하고 많이 경청하라. 이는 베네딕토 성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는 종종 나의 요점을 전달하려고 서두르느라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것을 파악하기는커녕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경청하지 않고 있음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이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깨달음이 얼마나 강한지 알면 놀랄 것이다. 우리 자신도 이를 체험해 왔지 않은가. 오히려 침묵을 실천하는 공동체들에서 얼마나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깨달으면 흥미로울 것이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오늘날 우리는 말하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딕토 성인은 우리에게 신중하게 이야기하라고 끊임없이 권고한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이 침묵보다 나을까?”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대꾸하기보다는 “당신 말은 당신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하고 말하는 것이 나올 때가 많다. 하지만 《수도 규칙서》에 있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베네딕토 성인은 언제나 균형의 덕을 지니라고 요청한다.

팁10: 다른 이를 조롱하지 마라. 솔직하라! 우리는 우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느꼈거나 당혹스러웠다고 느낀 사람에게 “농담이었어!”라고 말하곤 한다. 왜 이렇게 말할까? 그것은 거북하다고 느끼지만 사과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조롱하는 말은 상처를 준다. 놀림은 앙갚음이나 차별의 잔인한 형태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은 그것이 단지 장난이라 하더라도 동료들이 불쾌해한다면 잘못이다. 그러나 문제는 “웃을 때 배가 씩씩거리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라!”라는 중국 속담처럼 부적절하게 웃는 경우다. 이러한 웃음은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사람들을 서로 계속 의심하게 만든다. 상대방이 참으로 나와 함께 웃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존중받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팁11: 불화가 아닌 평화를 키워라. “이 단계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덕을 쌓고 윤리를 실천하는 중요한 법을 배울 수 있다. 이것은 때로는 그냥 침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침묵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해 베네딕토 성인은 잠언의 구절을 인용해 이렇게 썼다. “혀에 죽음과 삶이 달려 있다.”(규칙 6,5) 뭔가를 말하기보다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 경청한다면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건넬 우리 안의 그 무엇이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가 분열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건설하고 촉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할 수 있다. 베네딕토 성인은 온화함을 두고 가꿀 만한 가치라고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수가 적다.”(규칙 7,61) 곧 적절한 말을 선택하고 헤아려서 한다. 그것은 현안에 관해 두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때라도 상대방에 대해 공감하고 존중한다는 표시다. 베네딕토 성인의 이러한 메시지는 6세기 그의 수도원에 적용됐던 만큼이나 오늘날 직장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팁12: 고요함을 드러내라. 이는 용이 지적했듯이 내면과 외부가 같다는 것을, 안과 밖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깨달을 때, 인간성의 더욱 총명한 의미가 드러나고, 더욱 전인적인 인간이 태어난다. 물론 이 상태는 결코 정적이거나 불변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쇄신된다. 단순함의 깊은 의미가 드러난다. 고요함은 바로 이런 특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매료시킨다. 내적 갈등을 지닌 사람은 어느 단계에서도 문제 해결사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 절대 만족해서는 안되겠지만 어느 시점에는 베네딕토 성인이 《수도 규칙서》 머리말에서 약속한 것, 곧 우리의 마음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으로”(머리말 49) 흘러넘치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와 같은 내면의 고요함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느낌을 더욱 잘 음미하도록 해준다.

베네딕토 성인의 이러한 팁들, 곧 겸손의 12단계 팀을 종합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의 길이 조성된다. 그 길은 삶 자체를 위한 길이자 우리의 직장 생활을 위한 길이다. 이 길에서는 관계들이 깊어지고 놀라울 정도로 친밀해진다. 그 길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길, 생각하기(머리)와 사랑하기(마음)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길이다. 그런 존중을 통해서, 곧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한다. “솔로몬 임금,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포함해 역사에서 가장 많은 글을 남긴 몇몇 사상가들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역량”이 지혜다. 지혜를 이야기하는 이 목록에 우리는 베네딕토 성인과 그의 《수도 규칙서》를 추가하려 한다.

성찰: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온갖 것이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다.” - 방엔의 힐데가르트 성녀

## 나는 작은 협력자일 뿐입니다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이자 미국의 위대한 여자 성악가로 기록되고 있는 마리안 앤더슨.

그녀는 1925년 28세의 나이에 '뉴욕 필하모닉' 주최 신인 콩쿠르에서 많은 경쟁자를 뒤로하고 1등으로 합격하였습니다.

1935년에는 흑인 최초로 잘츠부르크 음악제에 섰고 이 공연을 본 거장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는 한 세기에 한번 나올만한 소리를 가졌다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워싱턴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진행된 무료 야외 연주회에서는 7만 5천여 명의 청중이 몰릴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그녀는 평소에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즐겨 썼는데 그녀의 말을 관심 있게 듣던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노래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부를 때도 작곡가가 있어야 하고 피아노 제조업자가 있어야 하며 반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속의 나는 작은 협력자일 뿐입니다."

우리 나라, 우리 엄마 등 유독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모진 역사를 겪으며 함께 살고자 마음과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크고 작음을 떠나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가 회복되는 따뜻한 사회도 함께 되길 바랍니다.

# 오늘의 명언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 -

## 고통이 없다면 좋은 것인가

오세진

순간의 기쁨이 파멸적인 결과로 이끌 수도 있고, 순간의 고통이 나에게 이익으로 다가오는 때도 있다. 고통과 기쁨의 순환고리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리니...

냄비 속 개구리, 고통 없었지만 죽었다!

'냄비 속 개구리'라는 표현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 같다. 조금씩 나빠져 가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부족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자주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냄비 속 개구리'에 대한 심리학적 실험의 원조는 지금으로부터 120여년 전 예일 대학의 첫 번째 심리학 실험실의 책임자였던 에드워드 스크립처의 실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cripture, 1895. 이 실험에서 스크립처는 개구리를 상온의 물이 담긴 비커에 넣고 일초 당 0.002 도 씩 물 온도를 높여 나갔는데, 두 시간 삼십 분 뒤 높아진 온도 때문에 개구리는 죽게 되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물의 온도가 죽음에 이르는 정도까지 올라갔으나 개구리가 그 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주 조금씩 상승하는 온도 때문에 개구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한편 좋은 것이었을 수도 있었으나, 결국 죽었다는 것은 개구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고통으로 인한 이득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느낀다. 어떤 특정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느끼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을 때 이 부족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한 여름의 덥고 습한 기온이나 한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 혹은 충분한 음식이나 수면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한다. 시험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의 불안감도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충분한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고통이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는 회피의 대상이 되는 '나쁜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고통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좋아할 수도 즐길 수도 없는 나쁜 것이지만, 기능적 측면에서는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냄비 속 개구리가 고통을 느꼈더라면, 그 고통은 개구리로 하여금 냄비에서 뛰쳐 나오도록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을 즐길 수는 없지만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배고픔의 고통은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해준다. 추위나 더위에 의한 고통 또한 옷을 입거나 벗는 것과 같이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신체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 시험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의 불안감을 공부를 하게 함으로써 낙제를 면하게 해줄 수 있게 해준다. 즉, 고통은 우리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 순간의 기쁨이 가져오는 파멸

한편, 고통의 반대인 쾌락pleasure은 우리가 좋아하거나 즐길 수 있지만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스키너는 그의 저서 *Beyond Freedom and Dignity*에서 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행동들이 만들어 내게 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다Skinner, 1971. 우리가 좋아하는 것, 즐길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행동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단맛이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비만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술을 마시면 마시는 순간에는 즐거울 수 있지만 다음 날 숙취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다.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는 재미에 밤을 새울 수도 있으나, 그 다음 날 심한 피로감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마약은 순간의 쾌락을 가져다주지만, 파멸적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

#### 고통의 혜택 vs. 즐거움의 비용

고통이나 즐거움에 대한 몇몇 정서emotion 심리학자들의 견해 또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반대 과정 이론Opponent Process Theory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뇌는 정서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Solomon, 1980.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정서 상태에 있게 되면, 이것은 뇌의 정서적 중립 상태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뇌는 다시 정서적 중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본래 정서 상태에 반대되는 정서적 반응을 활성화시키게 된다고 한다. 이를테면, 고통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는 정서적 중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통과 반대인 즐거움이라는 정서 반응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시점이 되면 고통에 뒤따라 활성화되었던 즐거움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통의 끝은 단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닌 그 반대인 '즐거움'의 상태일 수 있다. 반대로, 즐거움의 끝은 단지 즐거움이 끝난 상태가 아닌 '고통'의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라톤은 고통스러운 레이스가 끝날 때 느끼는 희열감으로 마무리되며, 번지점프 또한 공포감 뒤 느끼게 되는 희열감으로 마무리된다. 역으로, 즐거웠던 휴가의 끝은 허무함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마약을 통해 얻게 되는 쾌락은 곧 허탈감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솔로몬은 '고통의 혜택'benefits of pain 그리고 '즐거움의 비용'costs of pleasure이라고 표현하였다.

삶이란 냄비 속 개구리의 운명에서 볼 수 있듯 고통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삶이란 또한 즐거움 없이 유지될 수도 없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고통이나 즐거움에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고통은 고통스럽되 고통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즐거움은 즐겁되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고통스러울 때 고통만을 생각하지 않으며, 즐거움이 있을 때 즐거움만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 [편집자주] '냄비 속 개구리'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며,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2002년 동물학자인 빅터 허친슨V. Hutchison은 동물마다 생존 가능한 최대 온도Critical Thermal Maxima가 있어서 뚜껑이 열려져 있었다면 탈출했을 것이라며 이 실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 : 내 삶의 심리학 mind(<http://www.mind-journal.com>)

# 우리 눈물로 깨끗해지는 눈

조슈아 J. 맥켈위 글 / 장말희 옮김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정을 위한 열 가지』 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무를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2015년 1월 두 번이나 가슴 아프고도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다. 그것은 교황이 필리핀에서 수만 명의 청년과 태풍 피해 생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였다.

그 두 번의 순간은 교황이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다. 그 많은 가정이 겪은 엄청난 고통 앞에서는 어떤 현명한 사람도 때로 할 말을 잃고 만다.

열두 살 소녀 글리젤레 팔로마는 어쩔 수 없이 쓰레기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고 합판을 깔고 밖에서 잠을 자야 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그리고 교황에서 매우 단순하지만 심오한 질문을 했다.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어린 필리핀 소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며 물었다.

교황과 마닐라 청년 3만여 명이 만난 자리에서 연단에 오른 글리젤레의 진지한 물음은 교황의 마음을 움직였음이 분명했다. 교황은 준비한 연설문을 옆으로 밀어 놓고 40분 동안 고통과 사랑과 봉사의 본질을 설명하며 그 소녀의 질문에 답했다.

“사실 그 질문에 답은 없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고, 소녀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할 때에는 얼굴에 아픔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런 일들을 겪고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왜 그토록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 지금도 어린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삶에서 어떤 진실들은 우리의 눈물로 깨끗해진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다.

교황은 그곳에 모인 청년들에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기를 청합니다. ‘나는 울 줄 아는가? 내가 굶주린 아이를 보았을 때, 마약에 빠진 거리의 아이를 보았을 때, 집 없는 아이, 버려진 아이, 학대받는 아이, 사회가 노예로 이용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 나는 알고 있는가?’

“우는 법을 배우시다. 이 소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 준 것처럼. 그리고 이 교훈을 잊지 마시다. 왜 그렇게 수많은 어린이들이 고통당하는지를 묻는 이 중요한 질문을 그리고 이 소녀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잊지 마시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배우는 것, 참으로 배우는 것, 어떻게 우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교황은 그날 오전 필리핀 타클로반을 방문했을 때 이와 비슷한 상황을 접했다. 타클로반은

2013년 태풍 하이옌의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와 백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억수로 퍼붓는 비와 시속 100 K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친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백만 이재민과 함께 빗속에서 미사를 봉헌한 교황의 강론은 감동적이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황은 자신을 만나려고 몇 시간 동안이나 빗속에서 있던 신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걷는 것뿐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였던 하이옌은 6천 명 이상의 사망자와 2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입혔다. 태풍이 휩쓸 타클로반 지역의 90퍼센트가 파괴되었다. 2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4백만 명이 그것을 떠났다.

2015년 그곳을 방문한 교황은, 로마에서 당시 태풍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곳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울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황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니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시련을 그분께서도 견디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십니다.”

#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듯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눈물

류태영

『사랑편지』 중에서

K라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개학 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선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둘러보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첫 줄에 구부정하니 앉아 있는 작은 남자 아이 철수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K선생은 그 전부터 철수를 지켜보며 철수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하지 못하며, 잘 씻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지요.

끝내는 철수가 낸 시험지에 큰 X표시를 하고 위에 커다란 빵점을 써넣는 것이 즐겁기까지 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K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기록부를 다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수 것을 마지막으로 미뤄 두었습니다.

그러나 철수의 생활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의 1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철수의 4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K 선생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의 두꺼운 갈색종이로 어설피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K 선생은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습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사분의 일만 차있는 향수병이 나오자 아이들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며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 들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돌아간 후 한 시간을 울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녀는 읽기, 쓰기, 국어, 수학 가르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K 선생은 철수를 특별히 대했습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면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그 해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에서 철수가 쓴 쪽지를 발견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교사”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6년이 흘러 그녀는 철수에게서 또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교를 반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 있었고, 아직도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4년이 더 흘러 또 한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가 평생 최초의 선생님이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편지에는 ‘Dr. 박철수 박사’라고 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에 또 한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철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K 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주실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찌 되었을까요?

그녀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다는 그 향수를 뿌렸습니다.

이들이 서로 포옹하고 난 뒤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된 박철수는 K 선생에게 귓속말을 속삭였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K 선생은 또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철수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전 까지는 가르치는 법을 전혀 몰랐거든.”  
꼭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만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어주고 칭찬해준다면  
어른일지라도 분명 큰 일을 해내리라 믿습니다.

내 입술이라고 상대방을 내 잣대로 판단해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았는지  
K 선생님을 보며 다시 한 번 나를 점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오늘이 됩시다!

"오늘도 당신을 믿습니다."  
많이 넘어지는 사람만이 쉽게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이 넘어질 일이 생길 지도 모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축 처진 어깨로 앉아 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넘어진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眞 이며,  
자신과 싸우는 것은-- 善 이며,  
자신을 이기는 것은 --美 이다.

## ‘나’의 가치

어느 대학교수가 강의 도중 갑자기 10만원짜리 수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거 가질 사람 손들어보세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지요.

그걸 본 교수는 갑자기 10만원짜리 수표를  
주먹에 꽉 쥐어서 구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가질 사람 손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또 그걸 다시 바닥에 내팽겨쳐서 발로 밟았고  
수표는 구겨지고 신발자국이 묻어서 더러워졌습니다.  
교수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가질 사람?"  
당연히 손들었겠지요, 학생들은?

그걸 본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구겨지고 더러워진 10만원짜리 수표일지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군요.

'나'라는 것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나'일지라도  
그것의 가치는 전과 다르지 않게 소중한 것입니다.

실패하고,  
사회의 바닥으로 내팽겨쳐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란 것의 가치를 소중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히 하는 '나' 못지 않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고 또는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거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 좋은글 中에서 =

## 삶의 한가운데서 마주한 중년의 성장통과 깨달음

### 마테호른

20대에는 욕망의 지배를, 30대에는 이해타산, 40대에는 분별력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그 나이를 지나면 지혜로운 경험의 지배를 받는다

\_\_발타자르 그라시안

❖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커피 맛을 잘 아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상큼한 과일 향도 느끼고, 달콤한 초콜릿 향이나 고소한 견과류 향도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벌써 수십 년째 커피를 마셔왔는데도 그런 향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 오로지 쓴 맛만 느꼈을 뿐이다.

콩국수에 소금을 넣어서 먹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렇게 하면 콩물의 구수한 맛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란단다. 하지만 누구나 그 맛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 맛을 느끼려면 소금의 짠맛을 먼저 제대로 느껴야 한다. 그것을 모른 채 무작정 콩물부터 삼키면 그저 밋밋하고 멍멍할 뿐이다.

내가 커피 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콩물의 구수함을 모르는 사람들 역시 아직 그 맛을 즐기는 연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그 맛을 모른다고 해서 실망할 일은 아니다. 굳이 그것을 알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알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험이 내공을 깊어지게 해서 알지 못했던 향과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콩가루 묻은 인절미의 찢득함과 고소함, 나무껍질을 씹는 것만 같아서 싫어했던 고사리를 비롯한 나물의 참맛을 나이 들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보인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 이른바 깨달음의 순간인 셈이다. 잘나가고 높은 곳에 있을 때보다 힘들고 낮은 곳에 있을 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그런 경우가 많다. 가장 힘들고 낮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진실한 나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곳에서 보는 나는 오만하고 자만할 수 있지만, 낮은 곳에 있는 나는 더는 잃을 것이 없기에 더없이 욕심 없고 겸손하며 진실하다. 또한, 오만과 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만, 겸손과 진실함은 자신을 바로 보게 한다.

잘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깊이 숙인다. 벼가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다. 가득 찼기 때문이다. 설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다. 고개를 높이 치켜든 채 스스로 뽐내고 잘난 체할 뿐이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 안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인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크게 성공하려고 일부러 고개 숙이는 것이 절대 아니다. 거기에는 힘든 삶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진심이 담겨 있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스스로 깨우친 삶의 이치이기도 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삶은 멍멍하고 밋밋했다. 아무런 맛과 향도 느낄 수 없었을 뿐더러 무엇 하나 두드러진 것 없이 평범했다. 무엇보다도 삶의 내공이 크게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 특히 성공한 이들의 말과 행동을 무작정 쫓느라 바빴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젊고 잘나갈 때는 앞이 아닌 위만 쳐다보면서 달린다. 누군가가 앞을 가로막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며, 웬만해서는 질주를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올라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만은,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어렵고 힘들게 올라갔지만, 언젠가는 결국 내려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내려올 때쯤에야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 ❖ 중년의 성장통은 위기가 아닌 성찰과 깨달음의 순간

대부분 사람이 중년이 되면 큰 변화를 겪는다. 무작정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잘 달려온 것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달리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삶이 과연 내가 바라는 삶이었는지, 돈 버는 기계로만 살아온 것은 아닌지, 라는 실존적 불안과 의문이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년은 ‘사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생의 봄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에 찾아오는 사춘기에 빗댄 말이다. 실제로 이때는 사춘기처럼 신체·정신·환경적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한다.

나 역시 중년의 성장통을 한창 겪는 중이다. 단단하리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부쩍 약해졌고, '나를 위해서 살지 못했다'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갑자기 변한 입맛에 놀라기도 하고, 고전과 어른들의 말씀에서 뒤늦은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중년의 성장통은 위기가 아닌 성찰과 깨달음의 순간이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비로소 보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솔직히 돌아봐야 한다. 내면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함으로써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릇, 진정한 깨달음은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뚫고 나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법이다.

## 비밀 레시피

캐나다 소년 제리코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나이는 9살이었지만, 지적 수준은 4살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을 힘들어하는 심각한 섭식 장애도 앓고 있습니다.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특정한 감각을 매우 싫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제리코는 음료를 마시는 것은 크게 문제없었는데, 음식을 씹고 삼키는 감각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3주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리코가 유일하게 먹는 음식이 있었는데 바로 유기농 메이플 시나몬 와플이었습니다.

엄마는 와플과, 직접 만든 채소 과일 스무디로 아들의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와플이 단종된 것입니다.

당황한 엄마는 와플의 재고라도 구하기 위해 SNS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당 와플을 팔았던 과자 업체 네이처 패스가 집에서 와플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맞춤형 레시피와, 와플 재료 전부를 제리코의 집으로 직접 보내준 것입니다.

기업의 제일 큰 목표는 이윤의 추구입니다.

그러기에 회사에서 개발한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윤보다 더 중요한 건 성실한 기업 활동을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심입니다.

# 오늘의 명언

기업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 유일한 박사 -

## 꼰대인가 어르신인가?

### 홍성남 신부

나이를 먹으면 ‘꼰대’라는 말을 듣습니다. 꼰대는 신조어가 아닙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 온 말이지요. 표준어가 아닌 은어로, 사전을 찾아보면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늙은이나 꼰대나 모두 듣기 좋은 어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배인데도 꼰대가 아닌 어르신이란 말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꼰대와 어르신을 구별 짓는 것일까요?

먼저 어르신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아는 것도 많다 해도, 해 주고 싶은 말이 먼저 앞서도, 우선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부터 주의 깊게 들어 줍니다. 우선은 들어 주는 것이 어른의 미덕임을 잘 아는 것이지요. 반면에 꼰대라 불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말을 자르거나 폭풍 잔소리를 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는데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인격을 지닌 탓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은 자신이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잘 압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일 때,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존재만으로도 힘을 보탬니다. 그리고 자리를 내어 주거나 비켜 줘야 할 때를 정확히 판단하고 훌륭히 퇴장합니다. 반면에 꼰대라 불리는 사람들은 뭉그적거리는 것을 잘합니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지 모르는지 온갖 핑계를 다 대며 버팁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문 자리를 제대로 정돈해 놓지 않습니다. 직장을 예로 들면, 그러 사람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온 후임자는 전임자가 벌려 놓은 무책임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온갖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은 늘 자신의 학문이 부족하다 여겨 나이를 잊고 공부에 매진합니다.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고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 여기며 꾸준히 지식을 쌓아 갑니다. 반면 꼰대라 불리는 사람들은 공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 험담하는 재미로 살고 자신은 어디를 가나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소홀히 대했다가는 어른에게 예의 없이 군다고 야단을 치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저는 사제 생활을 하면서 신자들에게 꼰대가 아닌 어르신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쩌면 사제 생활이란 것 자체가 꼰대가 아닌 어르신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보다는 꼰대에 가까웠던

것 아닐까 자문하게 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제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여전히 끈대로 살고 있는 건가 걱정이 앞섭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본당 사목을 하면서 불쑥 튀어나왔을지 모르 저의 끈대질에 상처 입은 분들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어느 독일 노인의 시

### 김수환 추기경 옮김

세상에서 으뜸인 일은?  
기쁜 마음으로 나이 먹고  
일하고 싶지만 참고  
말하고 싶지만 침묵하고  
실망스러워질 때 희망을 갖고  
마음 편히 공손하게 내 십자가를 지는 일.

젊은이가 힘차게 하느님 길을 가도 시기하지 않고  
남을 위해 일하기보다  
겸손 되어 남의 도움을 받으며  
몸이 약해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어도  
온유하고 친절할 마음을 잃지 말자.

늙음은 무거운 짐이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오랜 세월 때론 마음을  
세월의 무게를 담아 마지막으로 담는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 .  
이 세상에 나를 묶어 놓은 끈을 하나씩 하나씩 끊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세상에 매여 있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겸손 되어 받아들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 두신다.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두 손 모으면 늘 할 수 있는 기도.  
사랑하는 모든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도록 빌기 위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어서 와, 친구야, 너를 결코 잊지 않았어,'  
임종의 머리맡에서 속삭이는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 기도, 소통이자 요청이다

C. S. 루이스 지음 / 윤종석 옮김

『기도의 자리로』 중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을 겪으면 기적이 일어난 건지, 우연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이뤄졌다면 더 그렇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1898~1963)도 그랬다.

그는 런던 방문을 며칠 앞두고 이발소에 가려다 만남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발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발소에 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단골 이발소로 간 루이스는 이발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다. 이발사는 루이스의 도움이 간절했다며 “오늘 꼭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이었다”고 했다. 방문이 하루 이틀 늦어졌더라면 이발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가 이발소로 온 건 이발사가 한 기도의 결과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 루이스는 문득 궁금증이 일었다. “기도의 효력을 입증해 줄 증거는 무엇인가.”

책에는 이처럼 루이스가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기도를 다룬 글이 담겨있다. 글은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네 가지 사랑’ ‘예기치 못한 기쁨’ 등 그의 대표작과 편지와 시, 수필 등에서 발췌했다. 기독교 사상가이자 변증가인만큼 기도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논리적으로 격파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책은 루이스 작품에 익숙지 않은 독자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장의 제목을 질문 형태로 편집됐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인용한 부분에서는 작품 배경을 요약한 ‘편집자 일러두기’도 달았다. 각 장 말미엔 원제와 출전을 표기해 독자가 추후 더 깊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루이스는 “기도는 과학처럼 확실한 경험적 증거를 결코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어떤 일이 기도한 대로 흘러갈 순 있지만,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적이 일어나도 그 원인이 기도라는 보장은 없다. 대신 루이스는 기도를 ‘요청’으로 봤다. “지혜가 무궁한 신이 유한하고 어리석은 피조물의 요청을 듣는다면, 당연히 승낙할 때도 있고 거부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의 핵심인데, 응답 여부에만 신경 쓴다면 본질과 멀어진다는 지적도 한다. “기도는 자동판매기가 아니다. 마법이 아니다... 기도한 대로 받는 사람을 왕에게 총애받는 신하로, 즉 왕인 하나님께 말발이 서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 이에 관한 답은 겿세마네에서 거절당한 그리스도의 기도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절대자라면 내 필요를 알 텐데 왜 구해야 하느냐’며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응수한다. “하나님은 우주의 이치를 정할 때 우리의 행위도 변수로 만들었다... 전쟁에 이기게 해 달라는 기도가 미련하고 외람되다면, 비 올 때 우비를 입는 행위도 똑같이 미련하고 외람된다. 당신이 비에 젖어야 하는지 아닌지도 하나님이 어렵히 알지 않겠는가.”

일견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 시시콜콜한 내용도 기도 내용으로 적합할까. 기도에 가장 적합한 마음가짐은 ‘우리 속마음 그대로’라는 게 루이스의 생각이다. 하나님과 교감을 구하는 기도는 수준이 높고, 소소한 걸 구하는 청원 기도는 급이 낮다는 통념도 반박한다. 그는 “하나님께 유치한 것을 구할 줄 모르면 큰 것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 고상해선 안 된다”며 “때로 우리가 작은 일로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 위엄보다는 우리 체면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루이스는 오랜 시간 견실한 기도 습관을 유지했다. 전통 기도서를 애용해 기도했고, 기도 노트엔 자기 기도 제목은 물론 주변인의 기도 제목도 정리했다. 훗날 기도를 부탁한 이를 만나면 상황이 개선됐는지를 묻고 기도 노트의 내용을 고치곤 했다. 기도에 관해 묻는 이들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내 조언했다. 책을 편집한 미국 하퍼원 출판사의 마이클 모듈린 편집장은 “루이스가 기독교에 관해 한 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준 삶도 주목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기도에도 일가견을 보인 신앙인 루이스를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mailto:grieg@kmib.co.kr)

# 가치들을 청하는 기도

## 아일랜드 관구

영원한 호스피탈리티의 하느님

당신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저희 가운데 계신 당신의 현존에 저희의 마음과 가슴을 열게 하소서.

동정심의 하느님

오늘은 저희가 서로 서로에게 동정심을 가질 또 다른 기회입니다.

저희의 동정하는 마음을 깊이 있게 하소서.

저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동정심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저희에게 일깨워 주소서.

존중의 하느님

당신의 창조물들에게 당신께서 보여주신 존중에 경외드리나이다.

모든 사람의 신비를 기억케 하소서.

저희의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보이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참된 존중을 보이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정의의 하느님

인간성과 모든 창조물에 깃든 당신의 정의와 진실을 찬미하나이다.

저희가 정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소서.

저희가 실패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 저희를 화해시켜 주소서.

정의와 진실로 행동하는 저희의 노력이 계속되게 도와주소서.

탁월함의 하느님

천주의 성 요한 보살피는 자들로, 저희에게 주신 은총과 재능에 감사드리나이다.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항상 기억케 하소서.

병자들에 대한 봉사와 완전을 향한 저희 자신의 성장에 저희의 은총과 재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탁월함으로 노력하도록 도와주소서.

## 인간다움 vs 탈인간화

### 다다익선

우리는 흔히 "인간답다"라는 말을 하고 "탈인간화"라는 말도 많이 쓴다. 두 말은 정확히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는 인간답지 않게 만드는가?

인간을 이루는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다른 종과 구별되어 인간이라는 또 다른 큰 분류로 묶이는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러나 동물 중에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에 나오는 개미들도 일종의 사회적인 동물이다. 우리와는 다른 사회를 가지고 있지만 개미 개체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본질을 이룬다는 점에 있어서는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을 이룬다고 하여 그러한 개체들을 "인간"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존엄성 존중이 인간 사회의 특징이고 그것을 어기는 게 인간성 상실과 탈인간화라고 할 수 있겠다. 한데 인간다움과,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사회는 인간 사회의 특징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다른 동물의 특징이 아니라고만 특정할 수 없다. 예컨대 돌고래나 범고래 같은 포유류 개체의 경우 분명히 개체 간의 존엄성을 상호 존중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다고 범고래를 인간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단지 인간을 닮았다고 할 뿐이다.

그렇다면 학습이 인간성을 구성하는 요소일까? 인간이 학습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지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동물이라면 대부분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 수준에 격차가 있는 것일 뿐이다. 특히 영장류의 학습 능력은 인간에게도 비유되지 않는가? 영장류가 돈의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통한 매매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도 실험으로 발견된 사실이다.

예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연은 기본적으로 미학적인 것을 추구한다. 공작새와 같은 거창한 사례로 가지 않더라도, 개미부터 원숭이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동물 중 상당수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만의 예술과 심미를 추구한다. 동물이 아니더라도 프랙털 현상을 예술로 치부한다면 식물 역시 훌륭한 예술가이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논리

적인 비약이다. 인간과 동식물은 분명히 예술이나 학습, 존엄성 존중, 사회 관계 구성이라는 대부분의 요소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나 몇 가지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대다수의 동식물과 달리 기술 기반의 문명 사회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인간이 다른 종과 보이는 차이는 결과 지향이나 과정 지향이나에 있다. 쉽게 풀이 하자면 다른 종들이 예술이나 존엄성 존중 같은 것들을 지향하는 것은 그것을 지향함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를 얻기 위함인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란 생물로서 가지는 기본 욕구이자 목표인 생존과 번식을 뜻한다. 예술의 예를 들자면, 공작새가 화려한 깃털을 가지는 것을 인간의 "미술"로 동치시키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공작새와 달리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위해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달새의 음악 소리도 비슷한 예시이다.

그보다는 우리 인간이 오히려 예술을 추구하면서 생을 파멸시킨 경우도 많았다. 램브란트는 20대에 일감이 끊긴 이후 60대에 굶어 죽을 때까지 자화상만 그렸다. 핑크 플로이드의 초대 리더인 시드 바렛은 음악적 영감을 얻기 위해 마약을 하다가 폐인이 되어 정신질환자의 인생을 살았다. 이 두 명의 인생을 조금 압축 제시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건 공작새와 종달새의 예술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보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는 학습이 있다. 동물도 학습을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느냐 이지 인간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거나 혹은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과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인문학과 같은 과목이 인간이 먹고 사는 데에 있어서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도 명확하다. 단지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해석할 뿐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발전시켜 온 학습 과목 중 가장 성과가 뚜렷했던 것 중 하나는 인문학이었다.

이러한 것들에서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인간이 학습을 하고, 예술을 하는 것 등은 동물과 분명히 공유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에 "특정한 목적이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생존을 위한 것도, 번식을 위한 것도 아닌데도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명확하고 뚜렷한 특징이다. 비록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특정한 것을 하면서 얻는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이 행동의 동기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종과 구별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탈인간화라고 부르는 현상을 면밀히 보면 그런 과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특정한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할 필요도 없다. 동식물 사회에서도,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도 생존과 번식이 무한한 굴레로 굴러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살면서 추구하는 특정한 목표 자체는 그 과정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다움"은 생존과 번식의 큰 틀에 잡혀있는 특정한 목표 - 즉 성공이나 경제적 부유 등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온다고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과 만족감 그리고 행복 그 자체에서 나온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에 아무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탈인간화가 일어난다.

출처 : 관촬은 뉴스(<http://www.nextplay.kr>)

# 『필요한 휴머니즘을 향하여』 중에서

## 수원카톨릭대학교 출판부

‘정신, 몸, 영혼 탐구: 인간 건강을 개선하는 혁신과 새로운 전달 체계’란 주제로 개최된 제5차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전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메시지

박현민 신부 옮김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과 몸 그리고 영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 국제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지난 수 세기동안 인간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와 성찰을 해 온 주제입니다. 교황청 문화평의회 의장 라바시 추기경, 이번 회의의 주최자들, ‘치료, 과학, 신앙’(STOO) 재단 이사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연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회의는 과학적 연구, 특히 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과학적이며 신학적인 성찰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는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동시에 우리의 연대감과 진정한 형제애에 대한 도전을 타나내는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 중심성에 대한 관심은 모든 병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의료 모델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제목에 표시된 세 가지 기본 영역, 곧 정신, 몸, 영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주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간관, 곧 인간은 몸과 영혼이 불가분의 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영혼 안에 지성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전통적 그리스도교 인간관과는 다소 다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703~1705 참조). 하지만 이 그리스도교 인간관은 새로운 인간관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 바오로는 인간이 ‘영, 영혼, 몸’(1테살 5,23)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삼중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교부뿐 아니라 오늘날 다양한 현대 사상가들도 받아들이는 인간관입니다. 오늘날 인간 존재의 특정 차원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바로 이 사실 자체가 인간의 모든 차원은 심오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는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차원 중에 그

나마 가장 즉각적으로 이해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과 함께 삶을 시작하지만, 반드시 신체만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잉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단순히 신체를 지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곧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에서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학연구의 역사는 인간 자기 발견이란 흥미로운 여정의 한 차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서양 학술 의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 문명 안에 존재하는 풍성하고 다양한 의학 역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과학은 확실히 불과 몇 세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지식과 그들 사이의 상호 작용의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구결과로, 우리는 거주 지역 상태와 신체 조건, 건강과 영양, 정신-신체적 건강과 특히 기도와 명상을 통한 영적 삶의 돌봄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들은 건강이 예술적 감수성, 특히 음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티칸 사도 도서관에 보관된 사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의학을 라틴어로 *philosophia corporis*(몸의 철학)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의학이 오늘날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학제 간 연구에 대한 더 넓은 비전과 헌신은 더 확장된 지식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의학에 적용한다면 더 정교한 의학연구를 위한 자원이 될 뿐 아니라, 더 적절하고 정확한 치료 전략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진행되는 유전학의 방대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술적 진보는 수많은 인류학적이고 윤리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화를 통제하거나 심지어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인간 조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개발한 인간 유전자 조작과 같은 기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자기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신이라는 인간의 두 번째 차원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적 질문은 인류가 수 세기를 거쳐 고민해 왔던 주제로,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지에 대한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간성의 본질은 종종 뇌와 뇌의 신경학적 과정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의 생물학적이고 기능적인 차원 중 많은 것들이 실제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뇌는 인간 신체의 물질성을 초월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뇌 물질 없이 정신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신이 단순히 뇌의 물질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뇌의 물질적이며 초월적인 이 두 가지 차원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 존재의 물질적 차원과 비물질적 차원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완전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 세기 동안 철학자와 신학자의 영역이었던 정신과 신체의 문제는 이제

정신과 뇌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학문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서 '정신'이라는 용어의 사용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학제 간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생물학적 기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분명히 구별됩니다. 실제로 '정신'은 생각을 형성하는 과정과 관련한 인간의 전체 기능을 나타냅니다. 인간 능력에는 도덕적 감수성, 온유함, 동정심, 공감, 연대와 같은 타인을 위한 마음이 있으면서, 이와 반대로 타인에 대한 무관심의 마음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술적 감수성은 물론이요, 무한성과 초월성을 추구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 능력의 기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인간 능력에 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다-그리스도교 전통과 그리스의 철학적 전통에서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인간의 초월적 차원과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 존재의 비물질적 원리, 곧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세 번째 주제인 인간 영혼의 원리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용어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지만, 고전철학자들의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영혼은 육체를 전체적으로 조직하는 구성원리(the constitutive principle)이며, 동시에 양심을 포함하여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일으키는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과 철학 및 신학적 성찰에 의하면, '영혼'이란 개념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영혼은 인간이 다른 어떤 생명체로 환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초자연적인 차원에 열려 있고, 따라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초월을 향해 열려 있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그 어떤 존재를 지향하는 개방성은 인간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개별적 인간의 무한한 가치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일반적 비유로 설명한다면, 영혼은 더 넓은 지평을 내다볼 수 있는 열린 창문과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전 세계의 다양한 대학에서 가톨릭 신자는 물론 가톨릭 신앙을 갖지 않은 학생들도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존재가 지향하는 초월적 지평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을 포함한 인간 본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 학제 간 연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며, 인간의 더 깊은 신비 앞에서 항상 여러분의 열정과 진정한 경이로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에 감명을 받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기적절한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광대한 심연입니다." (고백록 IV, 14, 22). 감사합니다.